

# 검역본부, 반려동물 분야별 협의체 출범

## 감염병·노령성 질환 대응 연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월 26일 경북 김천 본부에서 '반려동물 분야별 협의체'를 출범하고, 반려동물 질병 연구 현황 공유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 방향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관련 산업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종양, 당뇨병, 비만 등 만성·비감염성 질환이 증가하는 등 질병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검역본부가 지난해 수행한 연구과제 186건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연구는 26건(14%)에 그쳐 연구 역량이 산업동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바이러스질환과 내외 '반려동물

질병연구실'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연구, 생체자원은행 구축, 줄기세포 연구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출범도 반려동물 질병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협의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산업계 관계자, 학계 및 임상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연구 추진 방향 발표와 함께 향후 연구 과제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검역본부는 발표를 통해 법정·신종 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질병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 도입,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통한 진단 고도화, 반려동물 노화 관련 질환 연구와 줄기세포 치료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국가



▲최정록 검역본부장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계획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동물병원과 대학이 참여하는 상시 질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국가 단위 질병 데이터 축적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국내 임상 환경에 적합한 진료 행위와 질병명 표준화, 이를 기반으로 한 반려동물 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혈액·조직·세포 등 반려동물 유래 생체시료와 유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

리하는 바이오뱅크 제도 마련과 줄기세포 기반 치료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활용 기준 수립 필요성도 논의됐다. 국산 반려동물 백신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역학 자료와 병원체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검역본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 결과를 향후 연구 기획에 반영하고, 반려동물질환연구실을 중심으로 질병 진단 데이터 구축과 생체자원 확보, 연구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협의체는 반려동물 질병 연구와 정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민·관·학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질병 대응 연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형식 제한 없어 누구나 참여 가능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6월 1일부터 'MEET YOUR IDEA'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서비스와 만나는 당신의 육(肉)쾌한 생각'을 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계란 등급제 △골프 등급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축산물 가격정보 △우유 아이 급식 정보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전반이다.

공모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심층 제안'과 일상 속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간편 제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우수 제안 선정 과정에 국민 투표를 도입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내부 경진대회인 '국민 생각, 정책 만들기 대회'와 연계해 구체화한 뒤 실제 정책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공공 서비스로 구현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참여는 전자우편과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7월 12일까지다.

올해는 쇼트폼 영상, 카드뉴스 등 제출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간편 제안 부문을 운영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시상 규모는 총 200만 원이다. 심층 제안 부문은 최우수상 1점(100만 원), 우수상 1점(50만 원), 장려상 2점(각 25만 원)을 선정한다. 간편 제안 부문은 공감상 4점(각 10만 원), 장려상 10점(각 3만 원)을 시상하며, 참가자 10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농협사료, '하절기 스트레스 케어+ 보강사료 공급' 실시

##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4개월간 특별사료 공급

농협사료(대표이사 최강필)가 다가오는 역대급 무더위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하절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하절기 스트레스 케어+ 보강사료 공급'을 실시한다.

올해 여름 역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로 때 이른 고온 현상 발생 및 평균 기온 상승 등으로 예년보다 다소 더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농협사료는 축산농가의 큰 관심거리인 혹서기 가족의 생산성 관리와 스트레스 케어를 위해 비타민과 첨가제 등을 보강한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근심을 덜어줄 계획이다.

축우 농협사료 부산바이오의 신제품인 '안심케어'를 전격 첨가해 공급한다. 수용성 비타민 복합체와 생균제 등의 합제인 안심케어는 간 기능 개선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고온 스트레스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된 기능성 첨가제다.

특히 제품에 고농도로 함유된 △비타민E와 △비타민C는 지질 과산화막을 막아 여름철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세포 파괴를 직접적으로 방어하며, 이를 통해 하절기 급격히 떨어지는 수태율을 지켜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함께 배합된 △나이아신과 △비타민B12는 가축 체내의 지방 대사를 촉진함으로써 간 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간세포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양돈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돼지의 생산성 저하와 면역력 약화를 방어하기 위해 고농축 비타민 등을 보강한 사료를 공급한다. 이번 보강사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Cortisol) 분비를 근본적으로 억제해 대사 균형을 유지시킨다. 양계 고온 환경 노출 시 체내 대사 균형이 무너지고 호흡수가 급증하는 가금

류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 가금류가 극심한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난소 및 호흡기 점막 세포가 손상되는데, 이로 인한 체내 염증·면역 반응이 식욕 억제 기전과 맞물리면 사료 섭취량 감소, 산란율·난중 저하, 난각질 약화에 따른 파란울 상승으로 이어진다. 농협사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성 비타민과 항산화제 등을 집중 보강하여 가금류의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농협사료 최강필 대표이사는 "이번 하절기 스트레스 케어 보강사료는 농협사료의 축적된 영양학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혹서기 생산성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급하는 제품"이라며, "예고된 폭염 속에서도 축산농가의 생산성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소득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신청 접수 연장

## 지원단가 인상·신규 활동분야 추가 확대

축산환경관리원(문홍길 원장)은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참여 농가 신청 접수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한 달의 추가 기간 동안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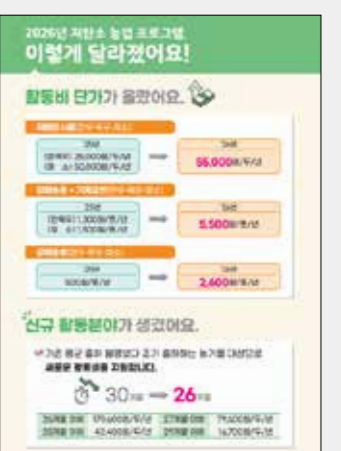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활동별 지원단가 인상과 신규 영농활동 분야 도입 등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소 사육농가가 대상인 저메탄사료 급이는 전년 대비 2.2배

인상되었으며 두당 55,000원(연)(25년 25,000원), 질소저감사료 급이는 돼지 두당 5,000원(연), 산란계 수당 200원(연)을 지원한다.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소 사육농가 대상 고정형 강제송풍 적용 시 전년 대비 5.2배 인상된 톤당 2,600원(연)(25년 500원), 강제송풍과 기계교반을 병행할 경우 4.2배 인상된 톤당 5,500원/연(25년 1,3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신규로 추가된 사육방식 개선 활동의 경우 한우(거세우) 출하월령을 26개월 이하 출하 시 두당 179,600원(연), 27개월 이하 79,600원(연), 28개월 이하 42,400원(연), 29개월



▲축산환경관리원 제공

이하 16,700원(연)을 출하월령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신청일 기준 실제 축산업에 종사 중인 농가로 농업e지(농업행정 통합플랫폼)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김영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고충상담원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태환)는 5월 29일 기관 소속 고충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고충상담원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충상담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정한 태도와 중립 원칙을 확립하고, 내담자와 상담자 간 신뢰를 형성하는 의

사소통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상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고충상담원들이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김용상

전무이사는 "고충상담원은 조직 구성원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러한 교육 등을 통해 우리본부 고충상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구성원이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년을 지나,  
100년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여 더욱 도약하겠습니다.

- 친환경 안심축산업 실현
-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 축산환경 전문가 인력 양성·교육
- 데이터 기반 축산환경 개선

축산환경관리원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itute